

“원음 최대한 반영 원칙” 의견 각각

“세계화 위해 옳다” “우리말 고착된 것까지?” 분분

불교학술용어표준화사업 ‘시안’ 일부 공개

구마라집, 구마라집, 구마라집, 구마라... 방대한 분량의 불경을 한역(漢譯)해 중국에서 불교가 뿌리를 내리는 데 크게 기여한 ‘구마라집’ 스님에 대한 표기들이다. 이처럼 표기법이 학문적 배경이나 개인적 취향, 유행 등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불교서적을 읽을 때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시작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의 성과물인 표준화 시안이 8월 13~15일 동학사에서 열린 ‘불교용어 표준화 분사위원회(회장 이병래)’ 워크숍에서 일부 공개됐으나, 그 표준화 원칙과 적용 범위에 대해 찬

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니르바나’는 ‘니르와나’, ‘구마라집’은 ‘구마라지’, ‘아녹다라삼삼보리’는 ‘안웃따라삼삼보리’, ‘반야’는 ‘뽀라가’, ‘찰나’는 ‘끄샤나’ 등으로 표준화된다. 예시를 통해 알 수 있듯 표준화 작업은 원음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동안 동일한 원전 용어가 다양한 한글 음가로 표기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으로 원전 용어의 비교 및 정비 필요성이 학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고, 전산화 추세에 따라 용어 표준화가 더욱 절실해진 것이 사

실이다. 용어를 제각각 사용할 경우 효과적인 키워드 검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교용어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불교용어 표준화가 저자와 독자, 학자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음 표기를 원칙으로 하는 표준화 방향과 그 범위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전성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을 거쳐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왜곡된 불교 용어와 표기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세계화의 측면에서 원어 표기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미 우리말과 다름없이 고착된 용어까지 산스크리트어로 되돌리는 것이 오히려 혼란만 야기할 뿐 실익은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보다는 원전 번역시의 표기 통일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반응이 이처럼 엇갈리는 것은 불교용어 표준화에 관한 학계 전반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표준화된 용어가 향후 수십 년 이상 학계의 ‘표준어’ 지위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준비와 검토를 거쳐 학계 전반의 충분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 기껏 표준화 작업을 해놓아도 학계 다수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기초 작업

이 이뤄지지 못한 데는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사업’의 촉박한 사업기간과 예산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발주한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의 한 분과인 ‘철학분야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의 하위 사업 분야에 해당한다. 참여 주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을 한국학술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그 아래 소속된 18개 분과가 각각 분과 사업을 총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의 총 예산은 3억원. 그 아래에 어학, 문학, 철학, 수학 물리 등 18개의 분과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1개 분과에 돌아오는 예산은 산술적으로 볼 때 1700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산 대부분이 분과 총괄 사업 관리에 책정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표준화 작업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학회 자체적으로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와 같아보니 공청회 등을 통한 학계 의견 수렴 절차를 포함할 엄두도 내기 어렵다. 2년에 불과한 사업기간도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에 대해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사업’의 한 관계자는 “적은 예산과 촉박한 사업기간으로 표준화 작업에 애로가 많다”며 “학술용어 표준화가 정보화와 학문발전의 기틀이 되는 중대한 국책사업임에도 교육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공개된 불교학술용어 표준화 시안은 추가적인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주관단체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화제의 논문

서산대사는 선교 통합 수행 강조

법진 스님 ‘조선중기의 선사사상...’ 박사학위 논문

“선과 교와 염불을 하나로 삼는 삼문(三門) 수행이야말로 서산에 의해 확립되어 현재까지 내려오는 한국불교의 전통이다.”

서울 정법사 주지 법진 스님(사진)은 최근 원광대학교원 불교학과에서 ‘조선 중기의 선사사상 연구-서산과 그 문도를 중심으로’란 철학박사 학위논문(三門修業), ‘사교입선’, ‘간화선 수행’의 사고방식이 한국불교에 이어져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진 스님은 논문에서 “서산은 실천수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원융한 수행을 주장했다”며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정토문(淨土門)의 삼문수행을 권장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경절문은 선조사상, 원돈문은 교문, 정토문은 선정(선교)의 통합수행을 뜻한다.

법진 스님은 또 <선교석> <선교결> <선가귀감> 등 서산의 저서에 나타난 일관된 경향은 ‘사교입선’이라고 분

석했다. 여기서 사교입선의 의미는 선종과 대립되는 교종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선과 교를 함께 깨달음으로 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서산은 실제수행에서는 스님들이 경전을 수업하게 하고 사교입선을 통해 조사선이자 화두선으로 귀일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강원 등에서 <도서>와 <절요>를 통해 기본 지식을 익히고 <법화> <화엄>으로 불법의 세계를 넓힌 다음 <전등록>과 <선문염송>으로 회향하는 것은 서산으로부터 정립되어 온 ‘사교입선’의 수행법이다.”

법진 스님은 또한 서산은 선교 정토(염불)를 아우르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원융수행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김재경 기자



홍련봉 제1보루에서 발굴된 고구려 연화문와당.

아차산서 고구려 연화문와당 발견

홍련봉서...남한선 처음

아차산 일원 16개 보루(전략 요충지)에 쌓은 작은 성(성) 가운데 유일하게 기와가 출토돼 주목받던 홍련봉 제1보루 유적에서 고구려 연화문와당(연꽃무늬 새긴 막새기와) 조각 3점이 남한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 같은 사실은 5월부터 이곳을 조사해온 고려대 매장문화재연구소(소장 이홍중)의 8월 23일 현장설명회에서 공개됐다.

조사단은 “임진강유역에서 고구려 기와가 출토된 예는 있으나 남한지역에서 와당이 출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6세기대로 연대가 확실

한 외당자료로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연화문와당이 궁궐이나 관공서, 사찰 등에서 쓰였던 장식재라는 점에서 홍련봉 제1보루에 군 사령부가 주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홍련봉 제1보루는 석축 성벽을 쌓은 후 내부에 건물을 축조한 구조로 온돌과 저수시설 및 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를 열고 홍련봉 제1보루 등 17개 보루를 ‘아차산 일대 보루군’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제455호에 지정 예고했다.

박익순 기자

고려사경의 비밀 ‘신라’에 있었네

김경호 씨 ‘대방광불화엄경’ 연구로 밝혀

고려시대의 사경은 중국에 역수출할 정도로 꽃을 피웠으며, 그 연원이 독창적인 신라 사경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경연구회 김경호 회장은 <신라 백지묵서(白紙墨書) 대방광불화엄경의 연구>라는 동국대학교원 미술사학과 석사 논문을 통해 “원나라에 많게는 1회에 100명이라는 많은 수의 사경승이 파견되어 중국의 금나라 대장경을 사경해 주고 돌아왔다는 기사가 <고려사>에 수 회에 걸쳐 나타난 정도로 고려 사경승은 세계 제일이었다”고 주장했다.

신라 불교미술의 전성기인 경덕왕대에 사경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경 유물인 호암미술관 소장품의 국보 제196호 백지묵서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결과가 사경 전문가에 의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이 백지묵서 <화엄경> 경신에 봉안되었던 사리는 부처님 진신사리였음을 확인했으며, 통일신라시대에 조탑소의 경전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뿐만 아니라 <대방광불화엄경>도 납담 봉안 사경으로 사경되었음을 규명했다. 김 회장은 또 신라 백지묵서 <화엄경>이 중국의 사경서체와 일반 서체와는 매우 상이한 독자적인 신라의 심미감이 반영된 서체로 기록되었음을 밝혔다. 서체의 연원은 백제 지역의 잔존 사경 서체로서 남조 서풍을 백제인의 심미감으로 재해석한 <무명왕릉지석>의 서풍을 이어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생존의 질서는 불성에서 비롯

서재영 씨 ‘선의 불성관...’ 발표

불교나 선사상이 현대 생태학의 사상적 대안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그 진가가 제대로 확인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재영 동국대 강사(사진)가 8월 28일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 57차 월례 발표회를 통해 발표한 ‘선의 불성관을 통해본 생명의 내재적 가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불교생태학 구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기에 충분했다.

서재영 씨는 선의 불성론이 존재 자체의 내재적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 범인과 성인은 불성이 있어 차별적이지 않으며(凡聖一如), 미물조차도 불성이 있다(蠢動含靈)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부각시킨다.

이와관련 서 씨는 불성을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삶의 과정과 존재를 상호간의 관계”로 규정한다. 이에 대한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조당집>에 실린 배후 스님과 동사 스님의

문답이다. 참에게 불성이 있느냐 배후 스님의 질문에 동사 스님이 “불성이 없다면 어찌하여 새매의 머리 에다 똥을 싸지 않겠는가”라고 답하는데, 이에 대해 서 씨는 동사스님이 한 개체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생존방식이나 질서조차도 불성의 한 단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그런 맥락에서 불성의 의미는 “존재간의 상호 관계성,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 씨는 주장한다. 서 씨는 이처럼 모든 존재를 유기적 전체로 통합하는 선사상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 도구적 가치관을 극복하는 데 유력한 근거며 살아있는 윤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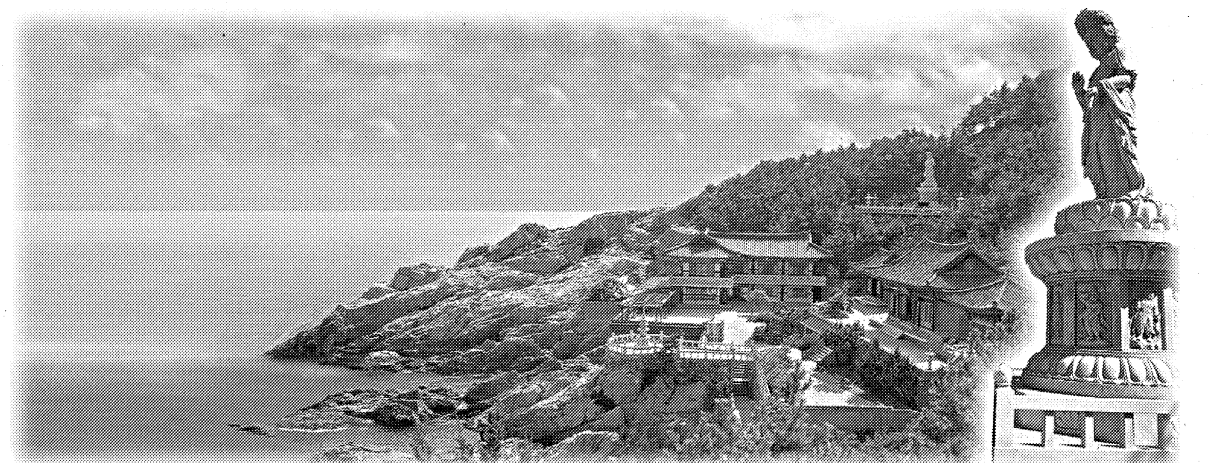
박익순 기자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甲申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물 배달해 드림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대진스님 초청 금강경 대강좌

- 기 간: 9월 14일 ~ 9월 20일까지 (1주일간 매일 오전 11시)
- 장 소: 상도동 보문사 법당
- 동참금: 무료 (교재 및 강의 테이프 무료)
- 연락처: (02)823-7443, 814-8793
- 대진스님 약력: 직지사로 출가하여 직지사 강주 10년 역임. 봉암사, 해인사, 동화사, 백담사 등 제방선원에서 10여년간 수행했고 현재는 지리산 백장암선원에서 정진 중.

상도동 보문사에서는 시민선원을 개원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禪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시 간: 오후 2시 ~ 9시까지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밤 9시-새벽 4시)

대한불교조계종 상도동 보문사
서울 동작구 상도 4동 279-390 02)823-7443, 814-8793